

용서와 성격 특성의 관계: 누가 용서를 하는가?*

이아룡 구재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용서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 자신, 타인, 상황을 용서하는지 밝히고자 했다. 대학생 총 272명(남자 154명, 여자 11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인 성격 변인은 신경증과 친사회성이었다. 신경증이 낮고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복수 동기가 낮았고, 자신, 타인, 상황을 용서하는 성향이 높았다. 용서의 대상에 따라 성격과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타인용서는 신경증보다 친사회성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고,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친사회성보다 신경증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 타인용서와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의 하위요인은 적대감, 순응성, 신뢰성이었고, 자신 및 상황용서와 높은 상관이 보인 신경증의 하위요인은 불안, 적대감, 우울, 심약성이었다. 또한 친사회성과 용서의 관계는 공감 및 자기존중감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상황적 요인이나 관계적 요인 뿐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용서, 성격의 5요인, 침해관련 대인동기, 복수 동기, 회피 동기

용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미덕, 또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시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것은 용서가 주로 종교의 영역 내에서 신학적 구성개념으로 이해되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이 시기부터 사회 과학과 행동 과학의 몇몇 연구자들이 용서 현상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용서는 기존의 관념적 접근의 대상을 넘어 과학적 접근의 대상으로 발전되었다(Worthington, 2005).

지금까지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용서의 예측 변인과 결과변인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그리고 용서의 결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용서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적응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용서는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적인 대처 전략으로써 심리적 안녕과 관계가 있었고, 반대로 비(非)용서는 스트레스, 정신병리의 지표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Bono, McCullough, & Root, 2008; McCullough, 2000; McCullough & Witvliet, 2005; Maltby, Macaskill, & Day, 2001; Muger et al, 1992; Tse & Yip, 2009).

용서의 선행변인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검토된

* 이 논문은 제5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Meaning에서 발표된 자료를 추가분석하고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구재선,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번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43)261-3626
E-mail: susanna9@hanmail.net

용서의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해 자체의 특징과 같은 상황적 요인으로, 가해가 심각하거나 가해 행위가 반복될 때, 가해자가 사과 등의 용서 추구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용서 수준이 낮았다. 용서의 두 번째 결정요인은 관계적 요인으로, 가해자와 친밀하거나 근접해 있을 때, 그리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용서가 용이했다. 용서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은 심리적 요인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가해자를 공감할 때, 가해에 대한 반추 정도가 낮을 때, 그리고 친화성이나 정서적 안정성 등과 같은 특정 성격을 지녔을 때 용서 수준이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McCullough 등, 1998; Mullet 등, 2005).

이렇듯 용서하는 사람(forgiver)의 성격과 심리적 측면은 용서를 결정하는 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적, 관계적 요인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용서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해를 입었거나 반복적으로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공감능력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않는다. 그러나 용서의 심리적, 성격적 요인들은 다른 상황적, 관계적 결정요인에 비해서 변화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어떠한 성격과 심리적 특성이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한다면, 용서실패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용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용서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용서의 촉진이나 저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격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용서의 개념화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아직 연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이론들은 주로 용서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용서의 대상을 자신에게 해를 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대표적으로 McCullough 등(1997; 1998)은 대인간 용서(interpersonal forgiving)를 침해자(transgressor)를 향한 동기적 변화로 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

인간 침해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침해관련 대인동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피 동기와 복수 추구 동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회피 동이란 공격자 또는 침해자와의 개인적, 심리적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복수 동기는 복수를 추구하거나 침해자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용서를 이러한 대인동기의 변화로 개념화하고, 침해자에 대한 회피동기와 복수동기를 측정하는 침해관련 대인 동기 척도(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를 개발했다. 이 척도는 특정한 침해 상황에 대한 개인의 동기적 경험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침해특정적 용서(transgression-specific forgiveness) 척도로 여겨질 수 있다(McCullough et al., 2000; Thompson & Snyder, 2003).

용서의 대상을 타인으로 제한한 McCullough 등(1997; 1998)과 달리, Mauger 등(1992)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용서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기용서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죄책감, 자신을 죄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타인용서는 침해자에게 복수를 하거나, 복수와 보복을 정당화하거나, 원한을 품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기용서의 실패가 내적 처벌양식(intro-punitive style)을 반영하는 반면에, 타인용서의 실패는 외적 처벌양식(extra-punitive style)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Enright(1996)도 자기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용서, 타인용서, 그리고 용서의 수용이 용서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제안하고, 자기용서를 자신의 객관적인 잘못을 인식했을 때 자기분노를 버리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연민, 관대함, 사랑을 촉진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자기용서 과정이 자기에(narcissism)나 자기존중감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한편 Thompson 등(2005)은 용서를 지각된 침해에 대한 재구조화라고 정의하고, 침해의 근원은 자신, 타인 뿐 아니라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용서의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침해는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은 어떠해야

한다(ought to be)'라는 자신의 기대나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침해를 경험하면, 일반적으로 침해자, 침해, 침해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유발되는데, 이러한 반응에는 부정적인 사고(예: 자신의 삶이 파괴된다는 생각), 느낌(예: 분노), 행동(예: 복수 추구)이 포함된다. 따라서 용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중립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침해와 용서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개인의 긍정적 가정을 위반하여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은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여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가정을 위반하여 질병 또는 그 결과에 대한 부정적 사고, 정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반응이 중립적 또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개인은 질병에 걸린 자신의 상황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상황적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Heartland forgiveness scale)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했을 때에도 상황에 대한 용서는 분노, 불안, 우울,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변량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용서가 침해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반응이 중립적 또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반응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McCullough 등(1997; 1998)의 경우 동기적 변화(회피와 복수동기)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반응에서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McCullough 등(1997; 1998)은 타인만을 용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Enright(1996)와 Mauer 등(1992)은 타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Thompson 등(2005)은 나아가 상황까지도 용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측정의 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McCullough 등(1997; 1998)의 TRIM 척도는 단일한 침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침해특정적인 반면에, 다른 척도들은 여러 상황에서 일관된 반응의 경향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질적 또는 성향적 용서 수준

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Thompson & Snyder,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침해를 당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침해의 근원으로 지각되는 자신, 타인, 또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용서하는 사람의 성격이 이러한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용서와 성격의 관계

용서와 성격의 관계는 주로 성격의 5요인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개인의 성격은 용서의 변량을 상당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특수적 용서의 경우, McCullough와 Hoyt(2002)의 연구에서 성격의 개인차는 실제 또는 허구의 침해 상황에서의 회피, 복수, 배려 동기를 22-44% 설명했다. 성격의 5요인 중에서 침해관련 대인동기를 예측한 변인은 친화성과 신경증이었다(McCullough & Hoyt, 2002). 또한 Maltby 등(2008)은 신경증(특히 분노 적대감)이 침해가 발생한지 2년 반이 지났을 때의 복수와 회피동기를 예측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분노를 경험하는 개인의 성향은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까지 용서에 대한 예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성격 특성은 침해관련 대인동기 뿐 아니라 타인을 용서하는 기질적 성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McCullough와 Bellah, Kilpatrick, Johnson(2001)의 연구에서 성격의 5요인은 기질적인 타인용서를 30% 설명했으며, 친화성과 신경증의 설명력이 유의미했다. 특히 신경증과 친화성은 성별, 연령, 종교활동을 통제했을 때에도 타인을 용서하는 성향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Neto, 2007).

자신에 대한 용서와 성격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Maltby 등(2001)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들이 성별을 구분하여 자기용서 및 타인용서 실패와 심리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자기용서의 실패는 남녀집단 모두에서 신경증, 불안, 우울과 정적 관련이 있었고, 타인용서 실패는 남성의 내향성, 여성의 불

안, 그리고 남녀 모두의 우울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성격의 5요인 모델을 통해서 자기용서와 타인용서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토한 Ross 등(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용서와 타인용서의 2요인 모델이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은 서로 다른 성격차원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용서는 신경증의 모든 하위요소와 강한 부적 관련이 있었고, 외향성(온정, 긍정적 정서), 친화성의 하위차원인 솔직성, 성실성의 하위차원인 유능성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타인용서는 친화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강한 정적 관련이 있었으나, 적대감을 제외한 모든 신경증의 하위차원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달리 상황에 대한 용서와 성격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드문데, Kashdan과 Fincham(2002)은 상황을 용서하는 개인적 성향이 성격의 5요인 중에서 낮은 신경증 및 높은 경험개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Thompson et al., 2005에서 재인용). 또한 Strelan(2007)의 연구에서 자기애, 죄책감, 수치심은 자신 및 상황용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지만, 타인용서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죄책감과 자존감이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용서의 관계를 매개했다.

자존감이 자기용서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면, 공감은 타인용서에서의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바 있다. McCoullough 등(1997; 1998)에 따르면, 성격은 용서의 가장 먼 결정요인인 반면에 공감과 같은 사회인지적/정서적 변인들은 대인간 용서의 가장 근접한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감이 대인 용서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공감이 용서를 촉진하는 이유가 침해자에 대한 배려(caring)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즉, 공감은 침해자가 느끼는 죄책감, 관계 재구축에 대한 갈망 등에 대한 배려를 유발함으로써 복수동기나 회피동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공감의 기능에 대한 Hodgson과 Wertheim(2007)의 연구에서도 조망수용은 타인에 대한 용서를 예측했으나 자기용서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용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격 차원은 신경증과 친화성임을 알 수 있다. 기질적, 상황적 용서 수준을 측정할 다양한 연구들에서

친화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용서를 보였다. 그러나 용서의 대상을 구분하여 검토한 연구들에서, 친화성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 신경증은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용서하는 것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매개변인의 측면에서는 공감과 자기존중감, 죄책감 등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중요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음의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다. 첫째, 용서가 그 대상에 따라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로 구분되고 시간적 안정성에 따라 기질적, 상황적 용서로 구분되는 다면적 구성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들은 용서의 어느 한 차원(특히 타인에 대한 용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Maltby 등(2001)에서 용서와 성격의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다루고 있다. 셋째, 성격의 5요인에는 여러 하위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상위 5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격의 하위요소를 다룬 일부 연구들에서 각 하위요소들은 용서와 동일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기용서는 외향성과는 약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외향성의 하위요소인 자기주장성과는 상관성이 높았다(Berry, Worthington, Parrott, O'Connor, & Wade, 2001; Walker & Gorsuch, 2002). 이러한 측면에서 Mullet 등(2005)은 용서와 성격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용서의 각 차원의 영향, 성격의 하위요소의 영향, 그리고 성별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 연구는 용서와 성격 특성의 관계를 다음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용서의 다면적 차원들을 다양하게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시간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질적 용서와 침해특수적인 용서를 포함했고, 용서의 대상에 따라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에 대한 용서를 포함했다. 그리고 용서의 각 차원들이 어떠한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둘째, 성격의 5요인 뿐 아니라 각 요인에 포함된 하위 요소들이 용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했다. 셋째, 용서와 성격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했다. 넷째, 성격이 용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변인들(공감, 자기존중감, 사회적 바람직성,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용서에 대해서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지 검토하고, 용서와 성격의 관계가 공감이나 자기존중감에 의해서 매개되는지 검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는 용서와 성격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대전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참여한 총 인원은 294명이었으며, 응답의 성실성이 의심되고 결측 문항이 많은 2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는 남자 154명, 여자 11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84세(표준편차: 2.247)이었다.

측정도구

용서척도, 성격척도, 자기존중감, 공감,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했고, 그 밖에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종교의 유형과 종교활동 참여정도)을 추가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였다.

용서 척도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해서 응답자의 기질적 용서와 침해-특정적 용서를 측정했다. 침해-특정적 용서의 경우,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한 침해-관련 대인 동기 척도(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에 대한 배정은 (2006)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응답을 하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해자와의 개인적, 심리적 접촉을 피하려는 동기(회피동기)와 침해자에게 복수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동기(복수동기)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회피동기 7문항과 복수동기 5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7과 .882이었다.

응답자의 기질적 용서는 Thompson 등(2005)이 개발한 Heartland 용서 척도(Heartland Forgiveness Scale: HFS)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 총 18문항으로,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 성향을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번안과정은 먼저 원문항을 국문으로 번안하고, 이를 다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문으로 역번안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문항과 역번안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중언어 사용자와의 토의를 거쳐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소척도 각 6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24에서 .696 수준이었다.

성격 척도

성격 5요인 모델(Big-Five Personality Model)의 성격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o 인성 검사(Neo-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NEO-PI-R)를 안창규와 채준호(1997)가 표준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개 요인과 각 요인에 포함된 30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고 있으며, 총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창규와 채준호(1997)의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신경증 .89, 외향성 .86, 개방성 .84, 친화성 .79, 성실성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 5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신경증이 .89, 외향성이 .88, 개방성이 .87, 친화성이 .84, 성실성이 .89이었다.

자기존중감과 공감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는 문화적 편향이 최소화되도록 한국인의 자기존중감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개발된 한유화와 정진경(2007)의 척도를 사용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0이었다.

공감 척도의 경우, Davis(1983)의 대인적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에 대한 강은경(2007)의 변안본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90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성격이나 용서의 자기보고식 측정이 갖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용서를 못하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받기 힘든 일이므로 응답자들이 사실과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측정된 용서와 성격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만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면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Paulhus(1998)의 2요인 모형을 기초로 제작된 PDS(Paulhus Deception Scale)와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척도를 토대로 최보라(2007)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24문항에 대한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91이었다.

연구절차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자기보고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응답한 내용이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공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유도했고, 자신의 바람이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현재 자신에 최대한 가깝게 답하도록 지시했다.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30-40분이었다.

결 과

용서와 성격 변인들의 평균 및 상호 관계

용서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계수를 표1에 제시했다. 상호상관을 검토했을 때, 회피동기와 자기용서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에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특히 회피동기와 복수동기 간에 $r = .51, p < .01$ 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회피 및 복수 동기는 타인용서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황용서는 자신 및 타인용서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용서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대학생들의 복수 동기는 회피 동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F(1, 271) = 88.69, p < .001$), 타인용서 수준은 자신이나 상황용서보다 더 낮았다($F(2, 538) = 5.55,$

표 1. 용서 변인들의 평균과 상호상관(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회피동기	복수동기	자신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복수동기	.51**	-			
자신용서	-.06	-.24**	-		
타인용서	-.38**	-.54**	.28**	-	
상황용서	-.16**	-.36**	.60**	.49**	-
평균					
남자	3.03(.86)	2.66(.95)	3.26(.55)	3.21(.67)	3.27(.58)
여자	3.34(.65)	2.71(.85)	3.41(.56)	3.20(.55)	3.33(.52)
전체	3.16(.79)	2.68(.91)	3.33(.56)	3.20(.62)	3.29(.56)

* $p < .05$. ** $p < .01$.

표 2. 성격 변인들의 평균과 상호상관(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신경증	외향성	경험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공감	자기존중감
외향성	-.35**	-					
개방성	-.08	.37**	-				
친화성	-.24**	.27**	.15*	-			
성실성	-.48**	.26**	.19**	.12	-		
공감	.13*	.28**	.55**	.43**	.12*	-	
자기존중감	-.37**	.54**	.45**	.22**	.49**	.30**	-
평균	남자 3.00(.37)	3.41(.36)	3.25(.33)	3.25(.31)	3.22(.36)	3.22(.34)	3.72(.48)
	여자 3.12(.44)	3.38(.37)	3.36(.37)	3.25(.33)	3.21(.36)	3.38(.34)	3.65(.42)
	전체 3.05(.40)	3.40(.37)	3.30(.35)	3.25(.32)	3.22(.36)	3.29(.35)	3.69(.46)

* $p < .05$. ** $p < .01$.

$p < .01$, Bonferroni $p < .05$). 성차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회피동기($t(270) = -3.45$, $p < .01$)와 자기용서($t(270) = -2.17$, $p < .05$) 수준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성격변인들의 평균과 상호상관을 표2에 제시했다. 상호상관의 경우, 신경증과 개방성, 그리고 친화성과 성실성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 중에서 신경증은 외향성, 성실성, 자기존중감과 강한 부적 관계가 있었고, 외향성 및 성실성은 자기존중감과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 밖에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공감수준이 높았고, 경험개방성은 공감 및 자기존중감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 차이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경증($t(265) = -2.46$, $p < .05$), 경험개방성($t(263) = -2.36$, $p < .05$), 그리고 공감($t(265) = -3.90$, $p < .001$) 수준이 더 높았다.

용서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관계

성격과 용서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기보고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측정변인들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단순상관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표3과 같이 자기용서와 공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사람은 회피 및 복수 동기와 신경증이

낮았고, 타인과 상황에 대한 용서,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자기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통계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용서와 성격의 관계를 검토했다.

표 3. 측정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관계

	사회적 바람직성
<u>TRIM</u>	
회피동기	-.23**
복수동기	-.19**
<u>HFS</u>	
자신용서	.11
타인용서	.19**
상황용서	.16**
<u>성격</u>	
신경증	-.49**
외향성	.19**
개방성	.14*
친화성	.16**
성실성	.55**
공감	.09
자기존중감	.37**

* $p < .05$. ** $p < .01$.

침해특정적 용서와 성격의 관계

TRIM 척도의 복수 및 회피 동기와 성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한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분석 결과를 표4에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성격 특성은 회피동기보다는 복수동기와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복수동기와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의 차원은 신경증과 친화성이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복수동기가 낮았고($r = -.38, p < .01$),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복수동기가 높았다($r = .29, p < .01$). 또한 복수 동기는 신경증과 친화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적대감이 높고($r = .32, p < .01$) 순응성($r = -.39, p < .01$), 솔직성($r = -.30, p < .01$), 신뢰성($r = -.28, p < .01$)이 낮은 사람이 복수동기가 높았다. 그 밖에 외향성의 하위차원인 사교성($r = -.24, p < .01$)과 긍정적 정서($r = -.18, p < .01$)가 낮은 사람이 복수동기가 높았다.

회피동기의 경우, 성격의 5요인 중에서 신경증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8, p < .01$). 성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의식이 높고($r = .18, p < .01$), 사교성($r = -.20, p < .01$)과 활동성($r = -.20, p < .01$)이 낮은 사람이 회피동기가 높았다.

다음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복수 및 회피동기와 성격의 관계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표5와 같이 복수동기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신경증 및 친화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회피동기와 성격의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있어서 남성의 신경증과 친화성은 회피동기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격의 5요인 중에서 신경증(특히 적대감)이 높고 친화성(특히 순응성)이 낮은 사람이 침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친화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남성이 침해자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았다.

표 4. 침해특정적 대인동기(TRIM)와 성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

	회피동기	복수동기
신경증	.18**	.29**
불안	.15*	.16*
적대감	.06	.32**
우울	.16*	.21**
자의식	.18**	.17**
충동성	.10	.15*
심약성	.09	.18**
외향성	-.13*	-.16*
온정	.01	-.16*
사교성	-.20**	-.24**
주장성	-.07	.04
활동성	-.20**	-.13
자극추구성	-.04	.01
긍정적정서	-.06	-.18**
경험개방성	.16*	-.04
상상	.13*	.08
심미성	.05	-.09
감정의 개방성	.17**	.04
행동의 개방성	-.01	-.10
사교의 개방성	.15*	-.03
가치의 개방성	.17**	-.05
친화성	-.16*	-.38**
신뢰성	-.15*	-.28**
솔직성	-.04	-.30**
이타성	-.06	-.19**
순응성	-.16*	-.39**
겸손	-.12	-.15*
동정	-.09	-.13*
성실성	.05	.01
유능감	.13*	.00
정연성	-.01	.06
충실성	.06	-.05
성취갈망	-.01	.08
자기규제성	.02	.00
신중성	.05	-.05
공감	.13*	-.08
자기존중감	.13*	.03

* $p < .05$. ** $p < .01$.

표 5. 성별에 따른 침해특정적 대인동기(TRIM)와 성격의 관계

	회피동기		복수동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경증	.21*	.13	.31**	.30**
외향성	-.16	-.03	-.21*	-.08
경험개방성	.17	.11	-.06	-.01
친화성	-.23**	-.09	-.32**	-.47**
성실성	.04	.06	.07	-.08
공감	.12	.12	-.01	-.18
자기존중감	.17*	.16	.13	-.12

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기질적 용서와 성격의 관계

다음으로 기질적 용서와 성격의 관계를 검토했다. Heartland 용서 척도로 측정된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와 성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는 표6에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기질적 용서는 침해특정적 용서보다 개인의 성격 특성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기질적 용서 중에서 타인용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 특성은 친화성이었다($r = .44, p < .01$). 또한 친화성은 모든 하위요소들이 타인용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순응성($r = .44, p < .01$), 신뢰성($r = .33, p < .01$), 이타성($r = .33, p < .01$)이 높은 사람이 타인용서 수준이 높았다.

친화성 보다는 그 관련성이 약했으나 신경증 또한 타인용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r = -.25, p < .01$), 신경증의 하위요소 중에서는 적대감이 타인용서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32, p < .01$). 그 밖에 타인용서는 외향성(특히 온정성과 사교성), 경험개방성(특히 행동의 개방성), 그리고 공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타인용서와 달리 자신 및 상황에 대한 용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 특성은 신경증이였다. 하위요인의 측면에서도 충동성을 제외한 신경증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자신 및 상황에 대한 용서와 유의미한 부

표 6. HFS와 성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

	자신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신경증	-.43**	-.25**	-.48**
불안	-.31**	-.14*	-.35**
적대감	-.34**	-.32**	-.39**
우울	-.42**	-.14*	-.44**
자의식	-.27**	-.17**	-.33**
충동성	-.11	-.16*	-.12
심약성	-.28**	-.08	-.31**
외향성	.31**	.18**	.22**
온정	.27**	.25**	.25**
사교성	.19**	.23**	.17**
주장성	.12	-.05	.05
활동성	.19**	.13*	.12
자극추구성	.13*	.03	.05
긍정적정서	.39**	.17**	.29**
경험개방성	.23**	.19**	.26**
상상	.03	-.01	.06
심미성	.10	.20**	.18**
감정의 개방성	.27**	.09	.16*
행동의 개방성	.19**	.25**	.27**
사교의 개방성	.09	.11	.16*
가치의 개방성	.30**	.13*	.27**
친화성	.22**	.44**	.27**
신뢰성	.26**	.33**	.21**
솔직성	.08	.24**	.11
이타성	.27**	.33**	.25**
순응성	.19**	.44**	.28**
겸손	-.12	.13*	.00
동정	.14*	.18**	.14*
성실성	.14*	.01	.05
유능감	.24**	.08	.19**
정연성	-.08	-.03	-.14*
충실성	.12	.00	.04
성취갈망	.06	-.06	-.05
자기규제성	.14*	-.02	.12
신중성	.13*	.08	.10
공감	.18**	.21**	.16*
자기존중감	.17**	-.02	.18**

* $p < .05$. ** $p < .01$.

표 7. 성별에 따른 HFS와 성격의 관계

	자신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경증	-.40**	-.53**	-.29**	-.21*	-.41**	-.61**
외향성	.28**	.37**	.18*	.17	.17*	.31**
경험개방성	.26**	.15	.11	.31**	.21*	.33**
친화성	.24**	.20*	.47**	.40**	.24**	.30**
성실성	.05	.25**	-.03	.08	-.02	.17
공감	.17	.15	.12	.36**	.17	.15
자기존중감	.13	.26**	-.14	.16	.07	.38**

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적 상관을 보여서, 우울, 적대감, 불안, 자의식, 그리고 심약성이 낮은 사람이 자신 및 상황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밖에 자신 및 상황용서는 외향성(특히 긍정적 정서), 경험개방성(특히 가치 및 행동의 개방성), 친화성(특히 신뢰성, 이타성, 순응성), 그리고 공감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성실성의 경우는 기질적 용서와 관련이 약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성실성의 하위요인인 유능감은 자신 및 상황에 대한 용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질적 용서와 성격의 관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표7과 같이 신경증과 친화성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기질적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경험개방성의 경우, 경험개방성이 높은 남성은 자기용서 수준이 높았던 반면에($r = .26, p < .01$), 경험개방성이 높은 여성들은 타인용서 수준이 높았다($r = .31, p < .01$). 또한 성실성이 높은 여성은 자기용서 수준이 높았으나($r = .25, p < .01$), 남성의 경우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 및 자기존중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집단에서만 성향적 용서와 상관이 있었으며, 공감이 높은 여성은 타인 용서 수준이 높았고($r = .36, p < .01$), 자기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자신 및 상황을 용서하는 수준이 높았다($r = .26$ 과 $r = .38, p < .01$).

요약하면, 타인에 대한 용서는 용서주체의 친화성 및 적대감과 높은 관련이 있었고,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용서주체의 신경증적 성향, 긍정적 정서, 그리고 가치와 행동의 개방성과 관련이 높았다. 공감 및 자기존중감의 경우, 여성집단에서만 자신,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용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격 특성이 인구학적 변인이나 공감, 자기존중감을

표 8. 침해특정적 대인동기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회피동기			복수동기		
	β	R^2	ΔR^2	β	R^2	ΔR^2
1단계		.11	.11 *		.05	.05
성별	.31 **			-.04		
나이	.15			-.17		
종교활동	.10			.09		
사회적바람직성	-.11			-.13		
2단계		.17	.06 *		.06	.01
공감	.23 *			.07		
자기존중감	.09			-.08		
3단계		.34	.17 ***		.33	.27 ***
신경증	.09			.31 *		
친화성	-.38 ***			-.45 ***		
외향성	-.14			-.06		
경험개방성	.13			-.05		
성실성	.03			.00		

* $p < .05$. ** $p < .01$. *** $p < .001$.

통제했을 때에도 용서를 추가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모형에서 1 단계에는 성별, 나이, 종교활동, 사회적 바람직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는 용서의 가장 근접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공감과 자기존중감을, 3단계에는 용서의 가장 먼 결정요인인 성격의 5요인을 추가로 투입했다.

침해특정적 대인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8에 제시했다. 회피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의 경우, 1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회피동기를 11% 설명했으며,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성별의 설명력만이 유의미했다($\beta = .31, p < .05$). 2단계에서 공감과 자기존중감을 추가했을 때, 회피동기에 대한 설명변량은 17%로 증가하여 1단계에 비해 6%의 추가적 증분을 보였으며($\Delta R^2 = .06, p < .05$), 이러한 증분에 기여한 변인은 공감이었다($\beta = .23, p < .05$). 그리고 3단계에서 성격의 5요인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설명변량은 34%로 증가하여 17%가 추가적으로 증분했으며($\Delta R^2 = .17, p < .001$), 친화성만이 이러한 증분에 기여했다($\beta = -.38, p < .001$).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정적 대상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으며, 성별과 별도로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성별 및 공감수준과는 별도로 친화성이 낮은 사람이 회피 동기가 높았다.

그러나 복수동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1 단계 회귀 모형의 설명변량은 5%에 불과했고, 모든 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변인을 추가했을 때 추가된 설명변량은 1%였으며, 이러한 증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Delta R^2 = .01, n.s.$). 그러나 3단계에서 성격의 5요인을 추가했을 때, 설명변량은 33%로 27%의 추가적 증분을 보였고($\Delta R^2 = .27, p < .001$), 친화성($\beta = -.45, p < .001$)과 신경증($\beta = .31, p < .05$)이 이러한 증분에 기여했다. 따라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동기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공감, 자기존중감보다는 성격의 5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친화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복수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질적 용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9에 제시했다. 1단계 투입변인들은 자신에 대한 용서를 9% 설명했으며, 상황에 대한 용서를 10% 설명했다. 자기용서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한 1단계 투입변인은 성별이었으며($\beta = .32, p < .01$), 상황용서의 경우 성별($\beta = .25, p < .05$)과 나이($\beta = .22, p < .05$)의 설명력이 유의미했다. 그러나 타인 용서에 대한 1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4, 105) = 1.11, n.s.$).

표 9. 기질적 용서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성격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신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β	R^2	ΔR^2	β	R^2	ΔR^2	β	R^2	ΔR^2
1단계		.09	.09 *		.04	.04		.10	.10 *
성별	.32 **			.06			.25 *		
나이	.13			.14			.22 *		
종교활동	-.07			-.17			-.17		
사회적바람직성	.07			-.05			.09		
2단계		.11	.02		.05	.01		.13	.03
공감	-.04			.08			-.18		
자기존중감	.18			-.10			.14		
3단계		.38	.27 ***		.29	.24 ***		.30	.17 **
신경증	-.61 ***			-.10			-.55 ***		
친화성	-.02			.47 ***			.00		
외향성	.12			.11			.03		
경험개방성	.22 *			.28 *			.12		
성실성	-.03			-.03			-.13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2단계에서 공감과 자기존중감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에 설명변량의 증분은 자기용서의 경우 2% ($\Delta R^2 = .02$, *n.s.*), 타인용서의 경우 1% ($\Delta R^2 = .01$, *n.s.*), 상황용서의 경우 3% ($\Delta R^2 = .02$, *n.s.*)에 불과했다.

그러나 3단계에서 성격의 5요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설명변량은 자기용서의 경우 27%의 추가적 증분이 있었고 ($\Delta R^2 = .27$, $p < .001$), 신경증 ($\beta = -.61$, $p < .001$)과 경험개방성 ($\beta = .22$, $p < .05$)이 이러한 증분에 기여했다. 타인용서의 경우 성격 5요인의 투입으로 증분된 설명변량은 24%였고 ($\Delta R^2 = .24$, $p < .001$), 친화성 ($\beta = .47$, $p < .001$)과 경험개방성 ($\beta = .28$, $p < .05$)이 이러한 증분에 기여했다. 끝으로 상황에 대한 용서의 경우 성격 5요인의 투입으로 17%의 설명변량이 증가했으며 ($\Delta R^2 = .17$, $p < .01$), 이러한 증분에 기여한 변인은 신경증이었다 ($\beta = -.55$,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과 상황을 용서하는 경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황에 대한 용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의 5요인은 인구학적 변인과 별도로 기질적 용서를 추가로 설명했는데, 자기용서와 상황용서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을 보인 성격 변인은 신경증이었고, 타인에 대한 용서에 있어서의 강력한 예언변인은 친화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경험개방성의 경우 자기용서와 타인용서 모두에 대해 설명력이 유의미했다.

성격과 용서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성격과 용서의 관계가 공감 및 자기존중감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용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성격 특성은 신경증과 친화성이었으며 공감과 자기존중감은 여성 집단에서만 성향적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경로분석은 여성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경증과 친화성이 공감 또는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자신 또는 타인 용서 성향과 관련을 맺는지 검토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공감이나 자기존중감을 통제했을 때에도 성격은 용서에 대해 고유한 설명

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성격의 직접효과와 공감이나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모두 가정했다.

먼저 공감을 매개로 한 친화성과 용서의 관계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했다.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이 3.74 ($df = 1$, $p = .053$), GFI가 .984, NFI가 .945, RMR이 .0497로 수용하기에 적합했다. 각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토했을 때 타인 용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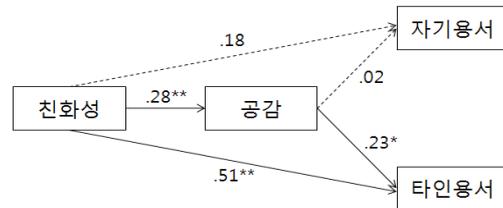


그림 1. 공감을 매개로한 친화성과 용서의 관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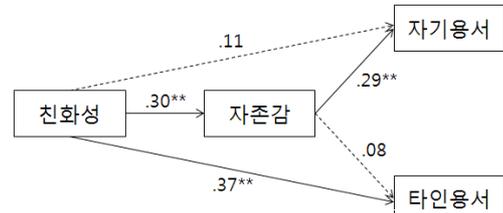


그림 2. 자존감을 매개로한 친화성과 용서의 관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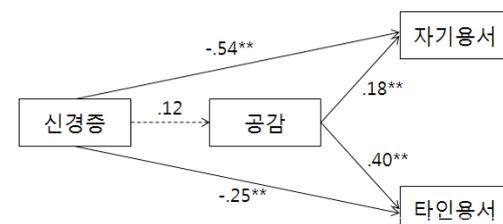


그림 3. 공감을 매개로한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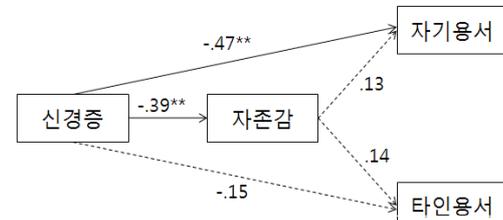


그림 4. 자존감을 매개로한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모형

대한 친화성의 직접효과 및 공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그러나 친화성 및 공감에서 자기용서로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존감을 매개로 한 친화성과 용서의 관계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를 그림2에 제시했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이 3.03($df = 1, p = .082$), GFI가 .987, NFI가 .937, RMR이 .0439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각 경로계수를 검토했을 때, 친화성과 자기용서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서 매개되었으나, 친화성에서 자기용서로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친화성에서 타인용서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 모형의 경우, 공감을 매개로한 모형(그림3 참조)의 적합도 지수는 χ^2 이 .78($df = 1, p = .376$), GFI가 .997, NFI가 .989, RMR이 .0193로 수용할만하였다. 경로계수의 경우, 신경증 및 공감에서 자신 또는 타인용서로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했다. 그러나 신경증에서 공감으로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공감은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못했다.

끝으로 자기존중감을 매개로한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 모형(그림4 참조)의 경우, χ^2 이 2.35($df = 1, p = .126$), GFI가 .990, NFI가 .965, RMR이 .0367로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이었으며, 신경증에서 자존감 및 자기용서로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자존감에서 용서로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자기존중감 역시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했다.

논 의

개인의 성격 특성은 용서를 결정짓는 요인의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McCullough et al., 1998; Mullet et al., 2005). 상황이나 관계적 요인 이외에 용서를 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용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격의 5요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 자신, 타인, 상황을 더 잘 용서하는지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용서는 침해특수적 대인동기(회피동기와 복수동기)와 자신, 타인, 상황

에 대한 기질적 용서를 포함했다. 성격 특성의 경우, 성격 5요인에 속하는 30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들과 용서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용서의 다면적 차원의 영향, 성격의 하위요소의 영향, 성별의 영향을 고려했으며, 공감과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침해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때, 선행연구들(McCullough et al., 2001; McCullough & Hoyt, 2002; Neto, 2007; Wang, 2008)에서와 마찬가지로 친화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은 사람이 침해자에게 복수하려는 동기가 낮고 타인을 용서하는 기질적인 성향이 높았다. 하위요인의 측면에서는 친화성의 하위요인인 신뢰성과 순응성이 동정이나 겸손함보다 타인을 용서하는데 더 중요했으며, 신경증의 경우 적대감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전적으로 외적인 상황적, 관계적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과정에서 용서 주체의 내적인 심리적, 성격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하는 주체가 타인을 믿고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과 화합하려는 성향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경증과 친화성은 타인용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용서하는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어서 자기용서 및 상황용서는 친화성보다 신경증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고, 타인용서는 신경증보다는 친화성과 더 강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신경증은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를 설명했으며, 친화성은 타인용서 성향과 가해자에 대한 회피 및 복수 동기를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용서가 신경증적 성향과 관련이 높고, 타인용서는 친화성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자들(Ross et al., 2004; Walker & Gorsuch, 2002)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신 및 상황용서는 충동성보다는 불안, 우울, 자의식, 심약성과 같은 신경증의 하위요인들과 높은 부적 관계를 나타낸 점에서 자기용서가 내적 처벌양식을 반영한다는

Mauger 등(1992)의 주장도 지지되었다.

왜 친화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은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용서하는가? 공감과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한 경로모형검증은 왜 친사회적인 사람의 용서 수준이 높은지를 일부 설명해준다. 본 연구에서 친화성과 타인 용서의 관계는 공감에 의해서 부분매개되었다. 따라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해를 입었을 때 침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심리적 불편함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을 하며, 그로 인해 침해자를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의 매개적 기능에 대한 McCoullough 등(1997; 1998)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친화성과 자기 용서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서 완전매개되었다. 따라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존중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감과 자기존중감의 매개적 효과는 여성집단에서만 제한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는 공감이나 자기존중감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들이 용서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감과 자기존중감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McCoullough 등(1997; 1998)은 성격과 용서의 관계가 다양한 사회인지적, 정서적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인에는 공감이나 자기존중감 이외에 가해의 의도나 책임에 대한 귀인, 가해 사건에 대한 반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이 용서를 하는 데에는 정서적인 공감보다는 인지적인 귀인양식이나 반추성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 신경증과 침해관련 대인동기(회피동기와 복수동기)가 침해의 심각성 인식에 의해서 매개되었음을 고려할 때(McCullough & Hoyt, 2002), 신경증과 용서의 관계는 공감이 아닌 사회인지적 요인들에 의해서 매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다양한 인지 양식의 영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신경증과 친화성 보다는 관계의 강도가 약했지만, 외향성, 경험개방성, 성실성의 일부 하위요인들은 용서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외향성 중에서 온정성과 사교성이 높은 사람은 복수동기가 낮고 타인용서 수준이 높았고, 긍정적 정서와 가치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용서 수준이 높았다. 특히 성실성의 경우 상위요인 수준에서는 용서와 관련이 미약했으나 성실성의 하위요인 중 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상황을 용서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와 성격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성격의 상위5요인 뿐 아니라 하위요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Mullet 등(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용서와 성격의 관계는 용서의 대상, 용서 주체의 성별, 그리고 성격5요인에 포함된 하위요소들에 따라 상이했다. 예를 들어, 신경증 중에서 적대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용서에 어려움이 있었고, 불안, 우울, 자의식, 심약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나 상황을 용서하지 못했다. 또한 성실성, 공감, 자기존중감은 여성의 용서 수준과만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따라서 용서 실패로 부적응을 겪는 사람들의 용서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적 개입 장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용서 증진이 목적이라면 환자 또는 내담자의 분노와 적대감을 조절하고 순응성과 같은 친화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자신이나 상황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친화성보다는 신경증, 특히 불안, 우울, 심약성 조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감능력이나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이나 타인 용서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남성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그치고 있어 왜 특정 성격의 사람이 용서를 잘하거나 잘못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 공감의 매개적 영향력이 검증되기는 했으나, 성격과 용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회인지적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용서와 성격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는 용서주체의 심리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용서를 결정짓는 다른 상황적, 관계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회피동기는 선행 연구(Maltby et al., 2008; McCullough & Hoyt, 2002)에서와 달리 성격의 측면들과 관련성이 약했는데, 이것은 회피동기가 피해자의 내적인 성격보다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의 반복성이나 심각성과 같은 요인들과 더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시작의 단계인 만큼, 용서와 관련된 상황적, 관계적, 심리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용서의 발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경(2007). 집단과정으로서의 왕따: 왕따 참여자 역할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정은(2006). 성격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창규, 채준호(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최보라(200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화, 정진경(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Berry, J. W., Worthington, E. L., Jr., Parrott, L., III, O'Connor, L. E., & Wade, N. G. (2001). Dispositional forgiveness: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transgression Narrative Test of Forgiveness(TNI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7, 1277-1290.
- Bono, G., McCullough, M. E., & Root, L. M.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Two longitudinal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195.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Manual for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Enright, R. D.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Hodgson, L. K., & Wertheim, E. H. (2007). Does good emotion management aid forgiving? Multiple dimensions of empathy, emotion management and forgivenes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 931-949.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81-885.
- Maltby, J., Wood, A. M., Day, L., Kon, T. W. H., Colley, A., & Linley, P. A. (2008). Personality predictors of levels of forgiveness two and a half years after the trans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088-1094.
- Mauger, P. A., Perry, J. E., Freeman, T., Grove, D. C., McBride, A. G. & McKinney, K. E. (1992). The measurement of forgiveness: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 170-180.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55.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 with forgiveness, rumination,

-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7, 601-610.
- McCullough, M. E., & Hoyt, W. T. (2002). Transgression-related motivational dispositions: Personality substrates of forgiveness and their links to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556-1573.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2000).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istory, conceptual issues, and overvie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14). NY: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 Witvliet, C. V. O. (2005).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In C. R. Snyder & S. J.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46-458).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Mullet, E., Neto, F., & Rivière, S. (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reveng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159-181). NY: Taylor & Francis Group.
- Neto, F. (2007). Forgiveness, personality and gratitu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2313-2323.
- Paulhus, D. L. (1998). *Manual for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BIDR-7)*. Toronto/Buffalo: Multi-Health systems.
- Ross, S. R., Kendall, A. C., Matterns, K. G., Wrobel, T. A., & Rye, M. S. (2004). A personalogical examination of self- and other-forgiveness in the five 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 207-214.
- Strelan, P. (2007). Who forgives others, themselves, and situations? The roles of narcissism, guilt, self-esteem, and agreeabl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259-269.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 and Measures* (pp. 301-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Tse, W., & Yip, T. H. (2009). Relationship among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other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 for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365-368.
- Wang, T. (2008). Forgiveness and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mong Taiwanese undergradua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 849-850.
- Walker, D. F., & Gorsuch, R. L. (2002). Forgive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127-1137.
- Worthington, E. L., Jr. (2005). Initial questions about the art and science of forgiving.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1-13). NY: Taylor & Francis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personality: Who forgives themselves, others, and situations?

Ah-rong Lee Jaisun Ko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personality traits. A total of 272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154 males and 118 female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 (avoidance and revenge), dispositional forgiveness (forgiveness of oneself, others, and situation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Neuroticism and Agreeableness were closely related with forgiveness. Other-forgiveness was more strongly correlated with Agreeableness than with Neuroticism, whereas self- and situation-forgiveness were more closely correlated with Neuroticism than with Agreeableness. In terms of facet scales, other-forgiveness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Hostility, Compliance and Trust, whereas self- and situation-forgivenes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Anxiety, Depression, and Vulnerability of the Neuroticism factor. It is also show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greeableness and forgiveness was mediated by empathy and self-este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orgiver's personality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forgiveness.

Keywords : *forgiveness, personality, the Big Five,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 avoidance, revenge*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7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8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20일